

# 낮선 세상에서 만나는 또다른 나

박노해 아시아 사진전 '다른 길'... 세종문화회관서



박노해 아시아 사진전 <다른 길>이 2월 5일~3월 3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지하 1층에서 열린다. 사진은 '나날이 새롭게'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진짜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 분명, 나만의 '다른 길'이 있다"

80년대 <노동의 새벽>으로 노동자의 삶을 노래했던 박노해 시인이 카메라를 들고 티베트, 라오스, 파키스탄, 버마, 인도네시아, 인디아를 돌았다. 그 대장정의 시간을 렌즈에 담은 7만 여 컷 중 엄선한 120여 컷의 사진이 대중들을 찾는다. 박노해 아시아 사진전 <다른 길>전이 2월 5일~3월 3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지하 1층에서 열린다.

지난 14년간 오래된 만년필과 낡은 흑백 필름 카메라 하나를 들고, 지상의 가장 멀고 깊은 마을과 사람들 속을 걸어 온 박노해. 이번에 포커스를 맞춘 곳은 아시아다. 눈물 젖은 땅이었으나 그 슬픔의 힘으로 치유하고 소화하는 강인한 생명의 힘이자 영혼의 대지임을 보여준다.

자신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지 인정 받으려 하지도 않으며, 인류를 먹여 살릴 뺨의 대지를 늘려가는 전봉마을 토박이들. '어찌할 수 없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찌할 수 있음'은 최선을 다해가면서, 우리 삶은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서로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카

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사진 속에서는 티베트의 승려도 만날 수 있고 사원을 내려다보는 풍경도 만날 수 있으며 짜이를 끓이는 가족의 따뜻한 모습도 만날 수 있다. 한편의 풍속화나 풍경화를 연상케하는 작품들은 사진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그래서 박노해의 사진은 눈에 띄지도 않고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는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고결을 묵묵히 포착해낸다. 이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삶의 전위'임을 그려 보인다. 그러나 이 낯선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마주하는 것은 정작 나 자신이다. 가슴 안의 무언가를 탁, 건드리며 근원적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

티베트에서 인디아까지 박노해의 뜨거운 '발바닥 사랑'으로 써온 다른 삶 속으로의 여정. 새해 아침, 내 마음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보자.

한편 박노해는 이번 전시와 함께 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을 출간한다. 전시작품을 포함한 총 140여 컷의 사진과 글이 수록되어 있다. (02)734-1977

정혜숙 기자

## 무료로 즐기는 만다라 체험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홍보관



소금 만다라 체험 장면

한국 전통문양 만다라 체험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종로구 우정국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1층 홍보관에서는 매주 수·토·일요일 시민들에게 만다라체험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색색으로 물들인 소금으로 만다라를 그려보면서 내면의 심리를 치유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인 스님은 "만다라는 인간의 내적 존재를 밝혀주고 균형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명상치

료에 효과가 있고, 참 '나'를 만나는 자기 실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함께 템플스테이문화사업단은 손수건 염색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 한다. (02)2031-2000

정혜숙 기자

# 도심사찰에서 체험하는 발우공양 음식과 전통의 소중함 느껴보세요

## 청유사 식당작법 '공양소합쇼'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까지의 과정을 생각하고 불보살을 생각하고 자연과 모든생들의 노고를 떠올리며 보살로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태고종 청유사 고양법매문화예술회원은 이 거룩한 공양의식에 작법무를 가미한 식당작법 '공양소합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켰다. 식당작법은 총림이 대법회시 설판재자가 준비한 공양을 받고, 대중스님들은 그 보답으로 법공양을 베풀게 되는 일련의 의식을 말한다.

작법이란 공양시 의식문이 범음, 범패로 행하여지며 이때 사물 즉 종, 목어, 운판, 북을 비롯한 각종 법구가 동원이 되고 법고, 무, 바라부, 착복(나비) 등의 작법무가 배풀어진다. 그 의식규모와 절차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데 '공양소합쇼'는 이런 과정들을 현대인들이 맞게 간소화 시키고 참여자들이 직접 공양의식에 참여해 음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사무국장 청산 스님은 형식의 간소화로 대중들이 쉽게 공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다. "식당작법은 일반 발우공양과는 달리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배우기도 어렵고 또 진행에도 많은 인원이 필요해 자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산재보존회가 있는 신촌 봉원사에서 영산재가 거행되는 당일 날 한 번 거행되고 나면 좀처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 좋은 의식을 대중들에게 자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고종 청유사 고양법매문화예술회원은 공양의식에 작법무를 가미한 식당작법 '공양소합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승화, 대중들을 찾아가고 있다.



영산재 당일 거행되는 식당작법 형식 간소화 시켜 대중에게 공개 재가자들이 불교문화 직접 체험 매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의식

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전해오고 있는 식당작법은 불교의 어떤 사상이 내포되어 있을까? 식당작법에는 반야심경의 전문을 인용 공의 사상을 바탕으로 불제자로서의 기본적 자세를 확인하고 있다. 청산 스님은 "각 계층에 들어있는 '원(願) 자와 오관(觀,

정식, 절수계 등에서 가리키듯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 실천을 발원하는 내용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전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 문명에 정신과 신체가 지배되어 무너지는 신구의(身心)를 청정하게 하여 자아를 증득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공양 의식이 끝나면 각자의 발우를 깨끗이 감치로 닦아먹고 정리로 하면서 회향계를 하고 종성을 치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다. 후에 스님들과 대화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도 있다. 청산 스님은 "이 의식을 재가자들이 직접 함께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단 불교문화를 몸소 접하면서 그 정신을

일깨울 수 있다. 또 요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데 음식을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을 체험함으로써 풍요로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의 의미를 전한다.

현재, 파주 금강사 주지 덕성 스님, 인천 영종도 정다사 주지 일원 스님, 영산재 문화해설 덕운 스님, 진해 스님, 신덕 스님 등이 의식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6시에 청유사 법당에서 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한국전통불교 의식을 체험하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 인원이 17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031)907-106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익산 문화의 정수 한자리에...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왕궁리 오층석탑 금강경판  
미륵사지 수각형향로 등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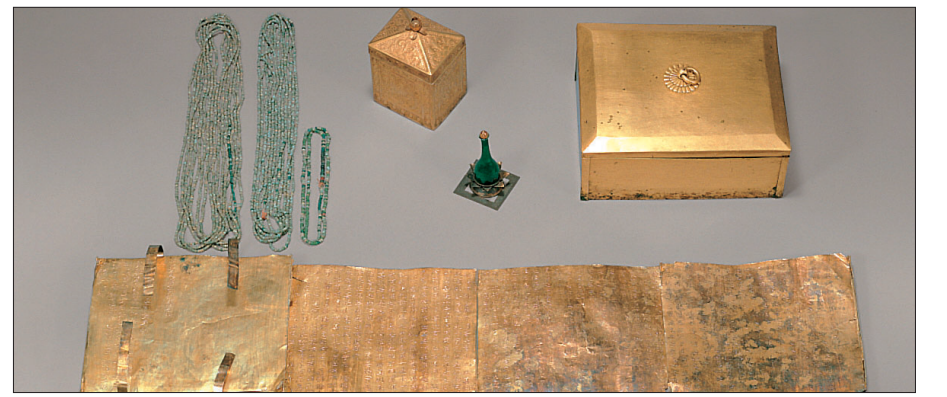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전북의 역사문화 12, 익산' 이 2월 9일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미공개 되었던 국보 123호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금강경판과 무왕의 치아로 추정되는 쌍룡 출토 치아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륵사지 출토 향로 '수각형향로' (보물 1753호), 후백제 때 만들어진 왕

궁리 출토 금동불입상, 2012년 발견된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사리호, 연인이씨중종문적박물관 소장 이승원(1428~1491)의 과거 합격증(보물 651호) 등도 주목할 만하다.

전북 익산은 고조선 준왕(準王)이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한 곳으로 백제 무왕(武王)이 새로운 백제 건설을 위해 새로운 왕궁과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을 바탕으로 미륵사를 창건한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백제의 부흥을 기치로 내건 견훤의 후백제 건설의 정신적 바탕이 된 곳도 익산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의 신·구 관찰사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던 곳 또한 익산이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익산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연다. 사진은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사리갖춤

이번 전시는 1부 '마한의 중심', 2부 '백제 시대부터 근대까지 익산의 역사와 문화의 제의 고도', 3부 '부흥의 터전', 4부 '전라도의 첫 고을' 등 총 4부로 나누어 구성

정혜숙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63,64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들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펴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 (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 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포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http://www.msjy.co.kr)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적하수도 된 장' '적하수도 고추장' 판매**

■ 적하수도, 적하수도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도 된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도 된장, 하수도 고추장은 청도 서릉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도로 만듭니다.**

**적하수도**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도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릉 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모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도 남서**